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6.(월) 11:00
(지면) 2026. 11. 17.(화) 조간
배포 2026. 11. 16.(월) 06:00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한·중·일 삼국이 동북아 항만의 미래를 논의

- 11월 17~19일, 울산에서 '제26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 대체 연료 벙커링·스마트 항만 등 6개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협력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울산에서 「제26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의 항만당국과 국책 연구 기관이 항만정책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서, 2000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올해 회의는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시대의 항만정책 방향'을 주제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동북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해상물류의 주요 거점이자 상호 연결된 물류망을 형성하고 있는 3국 항만당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1월 18일(수)에 열리는 항만국장회의에는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중국 주전위(Zhu Zhenyu)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일본 모리하시 마코토(Morihashi Makoto) 국토교통성 항만국 기술참사관 등이 참석해 각국의 탄소중립 항만정책과 에너지 전환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항만을 기존 화물 처리·물류 중심 공간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수입·저장·공급과 신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항만의 탄소배출 저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국은 ▲스마트 항만 평가 체계, ▲크루즈 협력, ▲대체 연료 벙커링 정책, ▲기후변화 적응,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 운송, ▲친환경 항만 기술 등 6개 공동연구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대체 연료 벙커링 정책 연구를 통해 동북아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19일(목)에는 3국 정부, 항만협회, 항만물류업계 및 연구 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여하는 항만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 항만의 탄소중립 전환과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항만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논의하며, 울산항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동북아 항만은 세계 해상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기반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3국 간 지속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항만을 미래 신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규섭 (051-773-5910) |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하성 (051-773-59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참 고** **제26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요**

##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6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 심포지엄
(The 26th Northeast Asia Port Director-General Meeting and Port Symposium)

○ **개최 목적**
- 항만 당국 대표 정례 회의를 통한 지속적 항만 발전 방향 모색
- 정부 및 민간 대표들의 교류, 화합, 네트워킹의 장 마련

○ **개최 기간** : 2026. 11. 17.(화)~19.(목)

○ **개최 장소** :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 **주요 일정**
- 1일차(11.17.)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과장급 회의
- 2일차(11.18.)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국장급 회의
- 3일차(11.19.) : 항만 심포지엄

## □ (참고) 개최 역사

○ '95년 한·일 항만국장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였으며, '99년 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확대키로 결정

○ '00년 이후 한·중·일 순서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중

< **최근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개최 현황** >

| 회차 | 15차 | 16차 | 17차 | 18차 | 19차 | 20차 | - | 21차 | 22차 | 23차 | 24차 | 25차 | 26차 |
|---|---|---|---|---|---|---|---|---|---|---|---|---|---|
| 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국가 | 중 | 일 | 한 | 중 | 일 | 한 | - | 중 | 일 | 한 | 중 | 일 | 한 |
| 개최지 | 난징 | 고베 | 인천 | 칭다오 | 시즈오카 | 창원 | 코로나19 | 중국(비대면) | 일본(비대면) | 부산 | 친황다오 | 아오모리 | 울산 |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0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3국이 순차적으로 개최